“사찰음식으로 부처님 가르침 전해요”

선재사찰음식문화원, 4월 7일
‘사찰음식 전법단’ 발대식 개최
스님 40명 · 재가자 80명 구성
자비 · 절제 · 생명존중 정신 알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선재사찰음식문화원이 사찰음식 전법단 발대식을 열고 사찰음식을 통한 전법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사찰음식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과 나누기 위한 ‘사찰음식 전법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30여 년간 사찰음식 연구와 대중화에 앞장서온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재 스님을 중심으로, 생명존중과 소욕지족의 정신을 전하는 다양한 전법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재사찰음식문화원(원장 선재 스님)은 4월 7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1층 메따강당에서 ‘사찰음식 전법단 발대식 및 품수증 수여식’을 열고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 사무처장 덕운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본연 스님,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유나방송 대표 정목 스님, 참나선원 선원장 혜광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규민 조계종 정무특별보좌관, 김상기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등이 참석했다.

사찰음식 전법단은 선재사찰음식문화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수강하고, 6개월 이상 연구 과정을 마친 스님 40명과 재가자 80명 총 120명으로 구성됐다. 오랜 시간 불교의 식생활 문화를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해온 이들은 사찰음식을 매개로 올바른 공양문화와 수행 정신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음식에 담긴 자비와 절제, 자연과 생명을 아끼는 태도를 널리 알려 대중이 ‘음식이 곧 수행’이라는 가르침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전법단을 이끄는 선재 스님은 “80년대에 출가해 70세를 넘기고 보니 나에게 음식은 수행이었고 포교의 밑거름이었다”며 “이제는 혼자만의 수행이 아니라, 전법단과 함께 ‘온 우주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정신을 알려나가는 데 마음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법단 회장 법정 스님은 “우리는 종종 배움을 미루면서 기회를 놓치고 산다. 이제는 이 기회를 움켜쥘 때”라며 “선재 스님이 걸어온 길을 따라 음식에 부처님 법을 함께 얹어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법단은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400만원을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전법단 출범을 축하하는 축사도 이어졌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앞으로도 대중에게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행복한지’ 알리는 데 역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30년간 한결같이 사찰음식 외길을 걸어온 선재 스님과 전법단의 음식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을 대신해 사무국장 본연 스님도 “사찰음식이 불교의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것, 나아가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음식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교계 영남 산불 피해 돕기 이어져

진각종 · 진흥원 · 대각회 · BTN 등
각계서 아름다운동행 통해 전달
태고종, 4월 16일까지 모금운동


태고종은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전국교구종무원 국장 연수교육에서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자비모연 행사를 진행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영남지역의 이재민과 문화유산 복구를 위한 기금 모연이 이어지고 있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 긴급 모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내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종단들이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해나갈 수 있길 서원했다. 능원 정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사건 사고는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라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대한불교진흥원도 3000만원을 전달했다. 신진욱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피해 사찰과 이재민의 회복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면서 “청정도량이 하루빨리 복원돼 스님들의 수행정진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대각회(이사장 장산 스님)는 4월 9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

대각회 이사장 장산 스님은 “종단 현안이 많고 나라도 어수선한데, 원장 스님께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면서 “사찰과 이재민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마음을 냈다”고 말했다.

같은 날 BTN불교TV(사장 구본일)도 진우 스님에게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 긴급 모금 5억원을 전달했다.

구본일 사장은 “모금 방송을 본 한 불자는 기도할 때 마다 모은 돈이라며 통장 전액을 기부했고 전국 각지에서 자비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후에도 피해 복구 모금 생방송을 진행하여 재해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종단적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태고종은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전국교구종무원 국장 연수교육에서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자비모연 행사를 진행했다. 태고종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4월 16일까지 10일간 각 시도교구 종무원별로 ‘경상지역 산불 피해 돕기 성금’ 모연을 진행한다.

상진 스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다. 작지만 진실한 정성,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 괴로움에 공감하는 한 줌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 임은호 기자

“사찰림 임도 개설·이격 공간 조성 필요”

진우 스님, 임상섭 산림청장에
“산불 진압 애써준 산림청에 감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현장에서 힘쓴 산림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찰림 구역 임도 개설과 이격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임상섭 산림청장의 예방을 받았다. 〈사진〉 진우 스님은 “최근 영남지역 산불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준 산림청과 소방청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사찰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불교계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섭 청장은 “이번 산불로 국민들뿐 아니라 사찰과 사찰림의 피해가 컸다”면서 “국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피해가 커 송구하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이번 산불을 겪으며 사찰과 산림과 이격 거리와 임도 개설 등의 중요성을 새삼 경험했다”면서 “법을 개정하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청장은 “사찰과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국가유산청이 함께 협의해야 하는 일이기에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번 건은 특수한 상황임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경찰불자에 “애썼다” 격려

이선래 경찰청 불자회장 등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선래 경찰청 불자회장(경찰청 대테러위기과장)의 예방을 받고 “탄핵 정국과 대형 산불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애썼다”며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최근 대형 산불과 탄핵 선고 관련 집회 등으로 국가적으로 고난이 있었지만, 경찰들의 안전 유지로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돼가고 있다”면서 “비교적 안정을 찾는 분위기여서 다행이다. 국민 스스로 극복하는 힘이 있으니 우리 국민을 믿어보자”고 말했다.

이선래 회장은 “조계사와 총무원 청사 주변이 한동안 시위로 시끄러웠을텐데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내에 큰 피해가 없으니, 부처님 가피 덕분”이라고 답했다.

임은호 기자



雨中 가피 속 ‘1만 6천 연등’ 동국대 불 밝히다

우중(雨中) 가피 속 1만 6000여 연등이 동국대를 불 밝혔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9일 교내 팔정도 광장에서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서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점등 버튼을 누르며 캠퍼스에 1만 6000연등에 불을 밝혔다.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총장, 학생 대표들은 불 밝힌 연등에 소원지를 달며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을 서원했다.

신중일 기자

봉행

서각사 (참선 염불선원) 복장 점안 및 개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는 꽃피는 계절을 맞이하여 불자님들께 도손 모아 합장 인사올립니다.
산승은 (사)한국불교약사회 총재 (사)한국효문화실천회
회장 대연각사(아미선원) 회주 진원 불일 승려입니다.
산승은 시절 인연따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북정 앞 백마강이 유유히 흐르는 도심속에
새롭게 탄생하는 부처님의 전법 전당이 되어질 서각사(참선 염불선원)을
복장 점안 및 개원법회 알리고자 초청장을 전해 드립니다.
산승은 3년간의 불사 끝에 여러 대덕 큰스님들을 증명 법사로 모시고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미륵존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보살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포대화상 복장 점안 및 개원식 법회를 봉행 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은 동참하시어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으시고 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일시: 불기2569년 양력 4월25일 복장 ♠

❖ 본 행사 불기2569년 양력 4월26일 토요일 오전 ❖

- 1부: 8시~9시 식전행사 (축하공연)
- 2부: 9시~11시 점인 및 불공 천도법회
- 3부: 11시~12시 증명법사 대한불교 조계종 암도 큰스님 법문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65 하성빌딩(3층) 서각사(참선 염불선원)

☎문의 : 041)835-3934, 010-7174-1711 서각사(참선 염불선원) 선원장 진원 불일스님 직통

♠주최: (사)한국불교약사회 총재 (사)한국효문화실천회 회장 ♠주관: 대연각사(아미선원) ♠후원: BTN 불교방송 특집방송 유튜브 방송 불일TV선명상 호국불교방송 세계일화